

스케일링은 왜 필요할까요?

2003년을 맞이하여 5복중의 하나인 치아건강을 위해 한누리치과병원의 이철우박사를 비롯한 전문의들에게 치아관리에서부터 예방,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식을 특별 연재로 들어본다.



한누리치과병원 이철우 원장

<약력>

서울대 치의학 박사
 을지대치과병원장, 임플란트센터소장
 서울치대 임상외래교수
 대한치과 이식학회 공보이사
 미국 치주·임플란트학회
 active member
 스위스 바젤치과대학 교환교수
 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위원

필자가 잇몸 질환 치료를 전공하는 치과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한 지도이 십년 가까이 된다. 그 동안에 우리 사회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으며, 치과 분야에 관한 환자의 인식도 달라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잇몸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기본적인 치료법인 스케일링(치석제거술)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프라그와 치석

사람의 입 속에는 누구에게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세균들과 그 부산물, 음식 찌꺼기 및 침(타액) 등이 섞여서 치아와 잇몸에 달라 붙게 된다.

이것은 프라그(치면세균막, 치태)라고 하며, 셀 수 없는 많은 세균의 덩어리므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독성물질에 의하여 잇몸 조직의 염증이 유발되고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라그는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음식 섭취시에 이루어지는 자정작용(음식물과의 마찰, 입술, 혀 및 뺨에 의한 운동, 침의 역할)만으로는 극히 일부분만이 제거되므로 우리는 식후에 잇솔질을 하여 입속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와 시간,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상태, 유전적인 요인, 잇솔질 능력 등이 다르므로, 잇솔질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에는 프라그가 제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어 있게 된다. 이러한 프라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물과 침속의 무기질 성분(칼슘, 마그네슘, 중탄산이온 등)이 침착되어 점점 더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치석이라고 한다. 즉, 치석은 단순한 돌 덩어리가 아니라 무기질과 수분, 세균 및 세균의 부산물이 석회화된 것이다. 일단 치아 표면에 치석이 형성되면, 그 표면이 매우 거칠기 때문에 프라그가 보다 쉽게 형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더 많은 치석이 잇몸 깊이 형성되게 된다. 그 결과 단단한 치석에 의한 기계적 자극과 함께 그 위에 부착된 프라그의 세균성 독성 물질에 의하여 염증이 유발되어,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생기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잇몸뼈)이 흡수되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를 뽑아내게 되는 원인이 된다.

스케일링은 왜 필요할까요?

스케일링(치석제거술)

치아에 부착된 프라그는 잇솔질을 하거나, 채소와 같은 거친 음식을 섭취할 때에도 쉽게 제거되는 반면에 치석은 스케일링이라는 전문적인 치과 치료법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사전에 찾아 보면 스케일링이란 “부착물을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치의학 용어로는 “치아에 부착된 치석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치아 표면을 회복함으로써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법”을 말한다. 치은염(초기의 잇몸 염증 : 염증의 진행된 상태가 잇몸의 살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의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올바른 잇솔질 만으로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염증이 진행되어 치조골이 소실된 치주염(풍치)의 경우에는 잇몸수술(치은판막술)을 시행하기 전에 염증을 완화시키고, 소독을 위한 예비적인 치료법으로써 스케일링을 시행한다. 요즘에는 구취(입냄새)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 스케일링을 시술함으로써 잇몸 염증의 치료와 함께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기도 한다.

스케일링 시술시, 과거에는 스케일러나 큐렛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시행하였으며, 요즘에는 초음파를 응용한 기구를 함께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치석을 제거한다. 치석 제거 시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보통이며, 잇몸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지만, 심각한 손상에 의한 출혈은 아니다. 치조골의 손상이 중증도 이상 진행되어 치근(치아의 뿌리)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치석 제거 후에 지각과민(차거나 뜨거운 것, 단 것 등에 몹시 예민하여 통증을 느낌) 등의 후유증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염증이 더욱 진행되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므로 치석을 제거한 후 지각과민 증상을 줄이기 위한 보조

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 치석이 침착되는 정도와 잇솔질의 효과가 다르므로, 누구에게나 일정한 간격으로 스케일링의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잇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년에 한번 정도의 구강검진이 필요하며, 검진시에 스케일링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미 치조골의 소실이 심각하거나 과거에 잇몸 질환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검진을 시행하여 각각의 상태에 알맞은 잇몸 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성인에 있어서 치아를 뽑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잇몸 질환(치주염)이다. 잇몸의 염증은 대부분의 경우에 만성 염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가끔씩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염증의 진행을 방지하게 되고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치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음식을 씹는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심미적으로도 불리해진다.

이러한 잇몸 염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잇솔질로 입안 구석구석의 프라그를 제거하고, 스케일링을 시술 받아 자정작용이나 잇솔질이 닿기 어려운 부위에 형성되는 치석을 제거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 02-753-1922)